

제 목	국 문	석면취급근로자에서 발생한 악성중피종 1례		
	영 문	Malignant Mesothelioma Occuring in a Asbestos Worker-A Case Report-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이덕희 <sup>1)</sup> , 정만홍 <sup>2)</sup> , 장태원 <sup>2)</sup> , 이지호 <sup>3)</sup> 1)고신의대 예방의학교실, 2)내과학교실, 3)양산삼성병원 예방의학과		
	영 문			
분 야	직업성 호흡기 질환	발 표 자	이 덕 희 (일반회원)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0 ), 연구중 (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1. 연구 목적**

석면은 석면폐증, 폐암, 중피종의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섬유성광물질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석면분진으로 인한 이러한 질병의 보고가 현재까지 없었다. 연자는 석면공장에서 18년간 근무한 근로자에게서 발생한 악성중피종 1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2. 증례 보고**

58세 여자환자로 6개월간 지속된 좌측흉통과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담배는 피우지 않았으며 직업력상 18년간 선박 및 자동차 내장재를 만드는 석면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6개월 전부터 흉통과 전신 쇠약감 및 호흡곤란이 있었으나 별 치료없이 지내다가 4개월 전부터 흉통의 악화로 회사를 사직하였다. 이 후 개인병원에서 폐렴으로 치료하던 중 좌측에 늑막액 저류가 발생하여 천자 검사상 결핵성 늑막염으로 추정 치료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본원으로 전원되었다. 이학적 검사상 환자는 만성병색이었고 좌측측만증과 호흡음의 감소 및 마찰음이 들렸다. 흉부 X-선 검사상 좌측 폐간질 음영의 증가와 늑막비후가 있었다. 검사실 소견상 혈청 CEA가 24.0ng/ml이고, 늑막액 검사 소견은 백혈구 850/mm<sup>3</sup>(poly 12%, lymph 87%), CEA 295ng/ml, 단백질 4.8g/dl이었다. 폐기능검사는 FVC 1.35 L(61% pred), FEV1 1.17 L(64% pred), FEV1% 87%, DLCO 12.20ml/min/mmHg(77% pred), DL/VA 4.68(111% pred)이었다. 흉부 단층촬영상 좌측 늑막액저류와 흉막이 전체적으로 불규칙하게 비후되어있고 석회침착이 있었고 좌측 폐문 임파절이 커져있었다. 흉막조직검사에서 광학현미경상 중피세포의 비정상적 증식과 핵분열이 왕성하였고, 전자현미경 소견상 microvilli가 나타났다. 환자는 심한 흉통으로 경막하신경블록을 실시하고 경구 물핀제제로 통증을 조절했으나 진단 3개월 뒤 환자는 점점 심해지는 호흡곤란과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